

녹차 먹인 광어

완도 양식어민 첫 개발
비린내 없고 육질 쫄깃

녹차를 먹여 키운 광어가 등 장했다. 녹차 먹고 자란 한우, 돼지는 있었지만 물고기에 녹차를 먹여 키운 것은 광어가 처음이다.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에서 광어를 양식해 온 박관철(54·현창수산 대표) 씨가 마침내 해법을 찾아냈다. 녹차에서 추출한 녹차액을 사료와 혼합해 먹이는 방법을 개발해 냈다. 박씨는 오래전부터 '엘빙 추세에 맞춰 병에 강하면서도 인체에 해가 없는, 무공해 광어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

지난 2004년 박씨는 녹차에서 추출한 녹차액을 생사료와 혼합해 광어에게 먹이는 새로운 양식방법을 개발해 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녹차에 함유된 '플라보놀'이라는 성분이 광어의 비린내를 없애고, 고깃살을 단단하고 탄력 있게 만들면서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쫄깃쫄깃한' 육질이 만들어졌다.

또 녹차 성분이 뼈를 부드럽고 연하게 만들어, 일반 양식 광어에 비해 소화와 흡수가 훨씬 잘되는 것은 물론 적조와 병에도 잘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지난해 '녹차 먹고 자란 광어' 30t을 일본에 수출, 5억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는 등 예년에 비해 훨씬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원도=정은조기자 ejchung@

광주는 지금 거대 주차장

2중·3중 불법주차 예사... 일곡지구 8차선중 4차선 점령

광주시내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다. 금년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으나 광주시내 각 구청은 견인 업무를 포기한 상태다. 이로 인해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뒤덮이고 있다.

13일 오후 2시 광주시 남구 월산동 대성사거리에서 백운로터리에 이르는 2km 구간의 도로는 노상주차장이나 다름없었다. 보도와 접한 차선(2차선 또는 3차선)에는 승용차들이 즐

지어 주차돼 있었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내버스는 차도 한복판에 승객들을 내리고 있었다. 시내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은 주차 차량을 피해 차도를 걷는 곡예 보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2일 오후 8시 광주시 북구 일곡지구 '마트앤마트' 앞 이곳은 왕복 4차선의 8차선 대로다. 그러나 도로 양쪽의 2개 차선씩 4개 차선을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이중삼중으로 점령해 불과 4개 차선만이 남

아 있었다.

주택가 이면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광주시 남구 백운동 국제호텔 일대와 봉선동·학동·문흥동 등 주택가 도로도 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다. 상무지구는 더욱 심하다. 광주시청 앞에 525면의 지하주차장이 있으나, 주·정차가 금지된 차로는 물론 보도까지 승용차들이 점령해버렸다.

지난해 말 광주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44만9천911대로 주차면은 35만6천262면으로 주차장 확보율(79.2%)이 7대 도시 평균(83.9%)에 크게 떨어지고 있다.

2%)이 7대 도시 평균(83.9%)에 크게 떨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견인 업무는 올해 3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광주시는 지난해 2월까지 지달동안 5천94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했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단 26대만을 견인했다. 견인업무가 중단된 것은 광주시공사가 올해부터 적자를 이유로 각 구청에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를 환원하면서 비롯됐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3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 입구에서 전남대병원 쪽으로 가는 일방도로 도로 양쪽을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점령하는 바람에 겨우 차량 한대 정도만이 어렵게 통과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FTA 이익 안되면 안한다”

노대통령, 3대 협상 원칙 제시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원칙과 과 관련, “경제외적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이 주로 면밀하게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안되면 체결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한미 FTA 종단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관련기사 5면>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철저하게 실익 위주로 협상하고 합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한 뒤 “또 신속 절차 안에 하면 아주 좋고, 그 절차의 기간내에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의 협상이라도 합의되면 된다”며 “미국에 대해 열지 못하는 것이 있어 합의수준을 높일 수 없으면 중간이나 그 보다 낮은 수준이라도 그 이익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높은 수준의 협상이 아니더라도 중간이나 낮은 수준

의 협상이라도 합의되면 된다”며 “미국에 대해 열지 못하는 것이 있어 합의수준을 높일 수 없으면 중간이나 그 보다 낮은 수준이라도 그 이익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기간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며, 그 범위안에서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모두 철저히 따져 국가적 실익, 국민 실익 중심으로 가면 된다”며 3가지 협상 원칙을 제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社告



“2012 엑스포는 여수에서”

사이클 순례단 19일부터 시·군 돌며 서명운동



새봄의 대지를 달리는 은륜(銀輪)에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함께 담아 보냅니다.

광주일보사는 지역발전과 한국경제 제도의약의 기록제가 될 2012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현지 실시(4월 9~12일)를 앞두고 전남도 각 시·군을 순례하는 사이클 릴레이 서명운동을 벌입니다.

전남 생활체육 자전거연합회 동호회원 40명으로 구성된 사이클 릴레이 서명단은 19일 전남도청 앞 광장을 출발, 각 시·군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지지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에 담긴 주민들의 열망은 세계박람회 사무국(BIE) 실사단에 전해져 엑스포 유치에 큰 몫을 해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12 여수엑스포 유치 지지를 위한 릴레이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光州日報社

北 영변 핵시설 폐쇄준비 징후 포착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13 합의'에 따른 핵시설 폐쇄 준비 움직임인지, 시설 보수를 위한 일시 가동중단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북수

의 외교 소식통들이 13일 전했다. 북한측 움직임은 북측 초청으로 13일 평양에 도착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우일백년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엄마 사랑해요! ” “여보 사랑해요!”
한마디 말로도
당신곁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Sensstick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국제약품